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전문가들, 미국 침체 가능성 상향 조정... 60%→65%
- WSJ: Real Time Economics: 서부에서 주택가격 내리고, 동부는 주택 붐

[미국 금융]

- WSJ: 고위 금융 당국자 3명, 의회서 금융 사태 관련 답변 예정
- Bloomberg: BlackRock, “시장이 여전히 금리 인하 베팅하면 실수”

[부동산]

- CNBC: 주택 가격 7개월째 하락 불구, 1월 감소 폭 낮아
- WSJ: 오피스 시장 타격, 고급 사무실 빌딩 까지 타격 준다

[반도체/전기차]

- WSJ: 반도체 업체들 투자 관련, “미국이냐, 중국이냐” 고민
- WSJ: 미·일, EV 배터리 사용 광물 관련 합의 도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메타, 보너스 줄이고 직원 평가 1년에 두 번 한다
- Bloomberg: 커피 제공, 사무실 복귀 전략 일수 있다
- WSJ: AI도구, 많은 직업에 도움 된다
- WSJ: 알리바바, 6개 독립 그룹으로 분할...창사이래 최대 개편
- CNN Business: 디즈니, 7천 명의 직원 해고 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Economists Boost US Recession Odds on Higher Rates and Banking Woes

전문가들, 미국 침체 가능성 상향 조정... 60%→65%

-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 예측 비율이 한달전 60%에서 65%로 상승했다. 블룸버그의 48명 이코노미스트 대상 월간 설문 조사에 따른 수치다. 연준의 변함없는 금리 인상과 일부 은행 추락에 따른 신경 경색 악화 탓이다.
- 바꾸어 말해 기업 채무 비용이 올라가고 은행 스트레스에 따른 신경 경색이 심해지면서 미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 America's Two Housing Markets, 서부에서 주택가격 내리고, 동부는 주택 붐

- 모기지 데이터 회사인 Black Knight Inc.의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와 오스틴을 포함한 12개 주요 주택 시장 모든 곳에서 1월 주택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오스틴을 제외한 콜로라도 동부의 37개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 지금까지 서부와 동부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 요인은 주택 구매 가격 경제성, 주택 공급, 일자리 성장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Top Bank Regulators to Face Senate Questions Over SVB, Signature Collapses

톱 금융 당국자 3명, 의회서 금융 사태 관련 답변 예정

- 이번 주 연방 상원과 하원에 출두해서 답변해야 하는 인물은 연준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 Michael Barr,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Martin Gruenberg, 연방재무부의 미 금융 담당 차관 Nellie Liang다.
- 이들은 의원들로 부터 SVB와 시그너처 은행에 대한 감독, 그리고 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 의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두 은행이 어떻게 해서 빠르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금융 당국이 엄격하게 감독했으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WSJ 기사

Bloomberg: Markets Are Wrong on US Rate-Cut Bets, BlackRock Says

BlackRock, “시장이 여전히 금리 인하 예상하면 실수”

- 세계최대 자산 관리사인BlackRock에 따르면 은행 위기에 따른 두려움이 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의 베팅과는 달리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은행에 따르면 연준은 분명히 하기를 은행 사태로 금융 위기를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통제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 한마디로 인플레이 통제를 위한 연준의 싸움은 악화될지 언정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것.
- 이에 대한 대책 관련해 물가 상승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 시장의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CNBC: Home prices cool in January, even falling in some cities, S&P Case-Shiller says****주택 가격 7개월째 하락 불구, 1월 감소 폭 낮아**

- 주택 가격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1월에는 하락폭이 다소 작았다. 원인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잠시 하락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 S&P CoreLogic Case-Shiller 미국 전국 주택 가격 NSA 지수에 따르면 1월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3.8% 만 상승 했다. 이는 12월의 5.6%보다 감소한 수치다.
- 10개 도시의 종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으나 12월의 4.4%보다 하락 했고, 20개 도시 복합지수도 2.5% 상승했으나 전월 4.6%보다 하락했다.
- 샌프란시스코(-7.6%), 시애틀(-5.1%), 오리건(-0.5%), 샌디에이고(-1.4%)에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 마이애미(13.8%), 탬파(10.5%), 애틀랜타(8.4%)는 상위 20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연간 가격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20개 도시 모두 2022년 12월에 비해 낮은 가격이다.

CNBC 기사

WSJ: Distress in Office Market Spreads to High-End Buildings
오피스 시장 타격, 고급 빌딩 까지 타격 준다

- 최근에 고급 오피스 빌딩의 채무 불이행과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원격 근무와 금리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에 오래되고 싼 건물보다도 현대적 편의 시설로 임대료까지 인상할 수 있었던 이른바 '클래스 A 부동산'이 이제 점점 압박을 받고 있다.
- Moody's Analytic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중심 비즈니스 지역의 임대 면적이 2021년 이래 처음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들 빌딩의 소유주들은 모기지 채무 불이행 특히, 금리 인상과 공실률 상승에 따른 금융 압박을 받고 있다.

WSJ 기사

[반도체/전기차]

WSJ: For Chip Makers, a Choice Between the U.S. and China Looms 반도체 업체들 투자 관련, “미국이냐, 중국이냐” 고민

- 반도체 법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다. 미국 지원으로 미국에서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계속 투자를 늘릴 것인가?
- 이 가운데 특정 반도체 공장인,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공장이나 첨단 무기 시스템에 이용되는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는 ‘중국 가드레일’로 알려진 일부 제한 조치들. 이들 제한 조치들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
- 이러다 보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좋은건지 아닌지 회사들은 의구심이 들고 있다.
- 특히 한국 정부 관리들은, 반도체 가드레일을 발표하기 전에 최근 서울에서 미국이 첨단 칩과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 기사

WSJ: U.S. and Japan Strike Deal on Minerals Used in Batteries for Electric Cars 미·일, EV 배터리 사용 광물 관련 합의 도달

- 양국의 이같은 합의로 인해 일본은 미국에서 신규 전기 자동차에 사용 광물에 부합될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의 독점 공급망을 막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양국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양측이 거래하는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동시에 광물 생산시 노동 기증을 서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이 협정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Facebook Parent Meta Plans Lower Bonus Payouts for Some Staff 메타, 보너스 줄이고 직원 평가 1년에 두 번 한다

- 메타는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금액을 낮추고 직원 성과를 더 자주 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 메타는 2023년 연말 리뷰에서 “met most expectations” 등급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이고 내년 3월에 예정된 ‘제한 주식’도 줄일 예정이다. 해당 등급의 보너스 계산 승수는 기존 85%에서 65%로 삭감 되었다.

- 또한 메타는 직원 성과에 대한 평가를 1년에 두 번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 절감을 위한 메타의 대응책중에 하나다.
- 메타는 두 번의 검토 기간 동안 낮은 성과로 평가 받은 직원을 회사에서 해고한다. 메타는 가장 최근의 성과 분석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하위 등급을 매겼다. 이 검토로 인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직원들이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메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만 개의 일자리를 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Is Coffee Bringing People Back to the Office?**커피 제공, 사무실 복귀 전략 일수 있다**

- 커피 제공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기업의 사무실 문화를 재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팬데믹을 통해 원격 근무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사의 리더들은 직원들에게 통근의 불편함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커피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 용이하다.
-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사무실 사용이 반으로 줄어든 반면, 커피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 세계 녹두 수출량은 920만 포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 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Jobs Most Exposed to ChatGPT**AI도구, 많은 직업에 도움 된다**

- GPTs 연구 논문은 생성 인공지능 능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 중 하나로 회계사를 꼽았다. 연구원들은 적어도 절반의 회계 작업이 이 기술로 훨씬 빨리 이 업무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와 Open AI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학자, 통역사, 작가 그리고 미국 노동력의 거의 20% 또한 마찬가지였다.
- 이 연구는 GPT 와 이를 통합한 소프트웨어가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 50%까지 줄일 수 있는 작업 비율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첨단 GPT 는 번역, 분류, 창작 및 컴퓨터 코드 생성과 같은 작업에 탁월하다.
- 방송 엔지니어인 Michael Quash는 단순로운 작업이나 복잡한 코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atGPT를 사용할 때 더 큰 효율성을 발견한다고 말했고, 그의 고용주는 “우리는 특정 과정에서 ChatGPT를 사용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지난주 발표한 다른 논문에서는 OpenAI의 최신 도구인 GPT-4의 능력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OpenAI는 수학, 코딩,

의학, 법률,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WSJ 기사

WSJ: Alibaba to Split Into Six Groups and Explore Separate IPOs in Major Shake-Up

알리바바, 6개 독립 그룹으로 분할...창사이래 최대 개편

- 알리바바가 6개 독립 그룹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 설치될 독립 사업 그룹은 클라우드 컴퓨팅, 중국 전자상거래, 글로벌 전자상거래, 디지털 마케팅 및 음식 배달, 물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이다.
- 6개 그룹은 각자 이사회를 설치해 그룹별 CEO 책임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고, 앞으로 조건을 갖춘 그룹은 독립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정을 통해 알리바바는 지주 회사인 알리바바 그룹과 6개 독자 사업 그룹, 미래에 생길 여러 개의 개별 사업 회사 등 '1+6+N' 체제가 된다.
- 알리바바 CEO인 Daniel Zhang은 "조직을 민첩하게 만들고, 의사결정 경로를 짧게 만들어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취지이자 근본 목적"이라고 밝혔다.
- Bloomberg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비판과 견제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 정비는 중국 규제 당국의 지지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Disney begins laying off 7,000 employees, CEO Bob Iger announces

디즈니, 7천 명의 직원 해고 한다

- 디즈니 CEO인 Bob Iger가 7,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디즈니의 전 세계 인력 감축은 미디어 산업의 혼란에 회사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 디즈니는 작년 10월 1일 기준 약 22만 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이 중 약 16만 6천 명이 미국에서 고용되었다. 7천 개의 일자리는 전 세계 노동력의 약 3%에 해당된다.
- 최고 책임자인 Bob Iger는 해고가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4월에 두 번째, 더 큰 규모의 해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3차 해고로 마무리될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빚더미 국가 구제금융 '큰손' 된 중국...IMF 추격"**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맡아온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지위를 중국이 잠식하면서 빚더미 국가에 구제금융을 주는 새로운 '큰손'으로 부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 내 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AidDat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수년간 경제난에 처한 국가에 제공한 긴급 자금은 2천400억달러(약 311조원)로 IMF를 빠르게 추격하는 양상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